

서경대 약술형논술

국어

목차

2027학년도 예시문항	3
문항 1	3
문항 2	5
문항 3	7
문항 4	9
 2026학년도 예시문항	 11
문항 1	11
문항 2	13
문항 3~4	15

2027학년도 예시문항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류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되며, 단위는 암페어(A)이다.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다.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다. 도선이나 회로 안의 원자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넓으면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로 인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회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전류 밀도처럼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피 효과가 있다. 교류 전류의 경우, 세기와 방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한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며,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유도 와전류이다. 도선의 경우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하고 도선 표면에서는 전류 흐름이 촉진되어,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표피 효과라고 한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이다.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열 발생이 커지게 된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는 특히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에서는 리츠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하여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전체 단면적에 전류가 더욱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중심부의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하여 자원을 절약하거나, 알루미늄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워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국어 문제 1] 윗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①~④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보기> 교류 전류에서의 표피 효과 발생 과정

- (1) (교류 전류) 전류 방향과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함
- (2) 전류 주변의 자기장 변화
- (3)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 생성
- (4) (①) 발생
- (5) 중심부 (②) 감소
- (6) 도선 표면의 전류 흐름 증가
- (7) 전류가 도선의 표면에 집중
- (8)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 (③)

(9) 저항 (④)

(10) 열 발생 증가

① (2.2점) ② (2.4점) ③ (2.6점) ④ (2.8점)

■ 예시 답안

정답

① 유도 와전류 ② 전류 밀도 ③ 감소 ④ 증가

풀이

표피 효과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교류 전류의 특성, 표피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표피 효과의 정의, 표피 효과와 주파수의 양의 상관관계, 표피 효과에 의해 열 발생이 커지는 이유를 뒷글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교류 전류는 시간에 따라 세기와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선 주변의 자기장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새로운 전기장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은 전자를 직선 방향이 아닌 회전하는 경로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때 전자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며 형성되는 회전 전류가 유도 와전류이다. 유도 와전류는 도선 내부의 전류 분포를 변화시키며, 특히 중심부의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도선 표면에서의 전류 흐름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하였다. 중세의 대표적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는데,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전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현대에 들어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이다.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적·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하여,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자기 보존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 등이 포함된다.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며,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

[국어 문제 2] 윗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①~④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서 쓰시오. [10점]

<보기>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의 합리적 인식이 자연법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보았으며, 자연법의 근거를 신이 부여한 (①)에서 찾았다. 마리탱은 선을 지향하는 성향을 통한 직관, 지적 성찰과 교육이 자연법의 인식 방식이며, 자연법의 근거를 인간 존재의 본질 속 (②)에서 찾았다. 메스너는 자연법은 사회 제도·정책의 규범적 기준이며, 인간 본성에 내재한 (③) 목적들이라고 하였다. 아퀴나스, 마리탱 및 메스너가 말한 공통적인 자연법의 근거는 인간 본성과 이성에서 유래한 (④) 규범이라는 점이다.

① (2.2점) ② (2.4점) ③ (2.6점) ④ (2.8점)

■ 예시 답안

정답

① 영원법(신이 부여한 보편적 질서) ② 내면적 질서 ③ 실존적 ④ 보편적

풀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서 유래한 보편적·도덕적 원리로, 시대·사회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으며, 영원법은 신이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자연법은 그 일부라고 보았다.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질서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자연법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메스너는 인간이 존재를 유지·완성하며 공동체와 타인을 배려하는 실존적 목적들이 본성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법이 개인 양심에 머무는 도덕규범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정책의 원리가 되어야 하며 복지·노동권·사회적 약자 보호는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주장하였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쟁이 터지자 뱃사공인 삼바우는 징병된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인 두칠, 천달 등을 배에 태워 강 밖으로 보낸다. 어느 날 마을로 가는 배에 오른 우편배달부에게 자신이 군수가 양 생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끓였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뻘다귀가 뭐 어찌고저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일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

“양? 엄마.” /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

“양?” / “…….”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 “하부이! 우이 머 하로 가노?”

“…….”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 별그레 부어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벌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순녀는 고무신을 벗어 들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까맣게 질려 있었고, 양 생원의 얼굴에는 두 봉우리의 광대뼈가 엄청나게 불거져 올랐다. 엄마의 궁둥이에 매달린 대열이는 달랑 달랑 종아리를 흔들며 돼지 새끼처럼 잠이 들어 있었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후다닥 배에서 뛰어내린 삼바우는 양 생원 앞으로 달려가서, / “인자 오시능교?”

여느 날보다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쫓쫓쫓 혀를 차면서 양 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를 자기가 받아들려고 했다. 으응! 하고 양 생원은 고개를 크게 한번 가로저어 버린다. 배에 오르자 순녀는 대열이를 내려 품에 안았다. 대열이는 보송보송한 눈을 비비면서 잠을 깬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국어 문제 3] <보기>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②에 해당하는 대상을 윗글에서 찾아서 쓰시오. [10점]

<보기> 이 작품은 자연 현상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다. (①)은/는 천달의 죽음으로 무겁고 우울해진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②)은/는 자식을 잃은 양 생원과 남편을 잃은 순녀의 울분에 찬 심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 ① (6점) ② (4점)

■ 예시 답안

정답

- ① 바람 소리 ② 벌건 불길

풀이

이 작품은 바람, 불길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바람 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무겁고 우울해진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고, 벌건 불길은 자식을 잃은 양 생원과 남편을 잃은 순녀의 울분에 찬 심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A]

북(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북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나]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국어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후 ①~⑤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 (나)에서 찾아서 쓰시오. [10점]

<보기>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현실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맞이하고픈 희망적 미래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는 현실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화자가 맞이하고 싶은 미래의 긍정적 이미지가 함께 제시된다. 작품 (가)는 [A]에서 (①), (②)와/과 같은 부정적 배경과 ‘새벽’, ‘꽃 맹아리’, ‘제비 떼’와 같은 희망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일제 강점의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

를 강조한다. 작품 (나)에서도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절망과 비애를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가 (③), (④), (⑤)으로/로 형상화되었으며, 현실 극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타내는 긍정적 이미지가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로 형상화된다.

- ① (2.3점) ② (2.3점) ③ (1.8점) ④ (1.8점) ⑤ (1.8점)

■ 예시 답안

정답

- ① 북(北)쪽 쓴도라 ② 눈 속 ③ 판잣집 ④ 잿더미 ⑤ 울상이 된 그림자

풀이

두 작품은 일제 강점의 불의한 현실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은 부정적 현실에 그치지 않고 맞이하고픈 희망적 미래를 함께 제시한다. 즉 두 작품은 현실의 부정적 이미지와 미래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작품 (가)에서는 ‘북쪽 쓴도라’나 ‘눈 속’과 같은 현실의 부정적 이미지와 ‘새벽’, ‘꽃 땡아리’, ‘제비 떼’와 같은 미래의 희망적 이미지를 대조하며, 작품 (나)에서는 ‘판잣집’, ‘잿더미’, ‘울상이 된 그림자’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개나리’, ‘소녀의 미소’와 같은 희망적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6학년도 예시문항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를 가리키며, 문화적으로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트 방주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례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보았으며,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 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방주네프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분리→전이→통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분리 단계는 의례의 입문자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일상적 시·공간과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이다. 전이 단계에서는 모호성이나 혼동 또는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드러낸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수련을 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방주네프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서 입문자는 변형된 상태로 사회에 통합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방주네프는 각각의 단계가 항상 대등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의 구조가 내포되거나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과 의례의 수행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과 의례의 세 단계를 ‘리미널리티 이전 → 리미널리티 → 리미널리티 이후’로 특징지었다. 리미널리티란 문지방과 같이 경계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통과 의례의 형식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그 핵심이 ‘경계 넘기’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비로운 탄생 : 입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통과 의례를 ‘격리→시련→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통과 의례에 내재한 성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다.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에서부터 그 증거가 발견되지만 소년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소년의 성인식 의례들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 놓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지만 소년

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국어 문제 1] 윗글에서, 아르놀트 방주네프의 이론과 비교하였을 때, ‘통과 의례’에 대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연구 관점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문장을 찾아 적으시오. [10점]

■ 예시 답안

정답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풀이

아르놀트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를 분리와 전이, 통합의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고, 한편으로 수행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핵심이 ‘경계 넘기’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방주네프의 이론은 통과 의례의 일반성과 사회성을 강조하여 개인적, 성적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비해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인의 실존적 측면을 관찰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였으나, 그 또한 남성을 문화적 존재로,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해석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통과 의례에 대한 방주네프와 엘리아데의 연구 관점의 결정적 차이는 통과 의례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는가, 개인의 실존적 측면을 강조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F(Science Fiction)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 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낮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낮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낮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낮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빈은 SF를 인지와 낮섬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낮섬’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낮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낮섬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낮섬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낮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낮선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낮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낮설게 바라본다. 수빈은 SF의 낮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낮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낮섬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낮섬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낮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SF의 낮섬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뭉(novum)’을 이야기하였다. 노뭉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뭉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뭉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빈은 노뭉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

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 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 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이러한 노BUM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어 문제 2] 아래 <보기>의 글을 밑글의 내용과 연계하여 읽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한 단어를 각각 밑글에서 찾아 넣으시오. [각 3.5점, 3.3점, 3.2점]

<보기> SF소설 ○○○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주인공인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들의 언어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다.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서 순환하는 상태인 것이다.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즉, 이 SF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경험하지 못했던 (㉠)을(를) 유발하는 것이며,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주인공의 세계관을 (㉡)으로(로) 바꾼다는 점에서, SF의 특징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 낮설 ㉡ 총체적 ㉢ 노BUM(novum)

풀이

위 지문은 SF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F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다르코 수빈은 SF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는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이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낮설게 바라본다고 하였다. 이때 SF의 낯선 것은 낮설을 유발하며 나아가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빈은 SF의 특징으로 ‘노BUM(novum)’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상상력에 기반하면서도 주인공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낮설을 유발하는 것이며,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SF의 특징 중 수빈이 말한 ‘노BU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3~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각 10점]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가] [“네? 교류요? 글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구 나하구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구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우리의 경위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 듯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곤 씩웃었다.

“사실주의의 그, 그것 말이지요?”

“네, 네, 결국 그런 것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선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나]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 의식과 우유부단은 못써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이편 경우는 또 이편 경우거든요, 이편 경우의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지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응했다.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당신들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지요, 팍팍하고 죄여 오고…… 어때요? 거기서 건달 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빗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뒤틀린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갈 바 방향이야요.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야요,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야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나한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는……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나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 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밀받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흐늘흐늘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검불만 남아요, 그러구 당신의 자

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빠진 거야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야요, 쉰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있지요, 있구말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구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의 모랄의 질(質)이 대개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지요.”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지요,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요?”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는…… 시민 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 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마침 좀 전의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우 원더풀’ 히죽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지껄이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편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웅웅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엔 섬세한 야유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선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편 사람은 시끄럽구먼, 왜 이리 야단이며,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 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며,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기나 하듯이 상대방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곤 내리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중략)

동편 쪽에 세로 섰던 빗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대였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하,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덤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 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어마아,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 조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그편 차니까.” /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문제 3] 윗글에서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을 찾아서 적으시오. [10점]

[문제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남북 교류’와 관련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각 인물의 심리적 태도를 아래 조건에 맞게 적으시오. [10점]

조건 1) [가]: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한 ‘진수’의 심리적 태도를 적을 것.

조건 2) [나]: ‘남북 교류를 통한 남북의 화해’에 대한 ‘여기자’의 심리적 태도를 적을 것.

<보기>

이 작품은 196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판문점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표가 회의를 하는 장소이지만, 판문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남북 대표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근본 원인은 남과 북의 지식인을 표상하는 진수와 여기자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이들의 ‘남북 교류, 자유와 정의, 정치 체제’ 등에 대한 논쟁은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남북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마침내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 예시 답안

[문제 3]

소나기

풀이

남북의 회담 참가자들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이로 인해 회담장의 분위기에는 긴장감이 넘친다. 이때 내리는 소나기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리면서, 회담장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 4]

[가] 진수: 회의적 태도

[나] 여기자: 낙관적 태도

풀이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했을 때 진수는 남한 사람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자는 북한 사람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남북의 화해 방법이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단순히 교류에만 집중하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